

순천 신대지구 불법 용지변경 후폭풍 주택 못짓게 된 건설사들 소송 제기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광양경제청 상대 2개사 제기 검찰, 공무원 영장 수사 속도 광양청 전 간부 소환조사도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부실' 행정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승인 기관의 부실한 감시·감독과 '특혜' 행정이 맞물리면서 변경된 부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검찰은 이미 배후단지 조성사업 비리와 관련, 지난해 담당 공무원을 구속한 데 이어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추가로 청구하는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주택개발과 B기업이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도시형 생활주택)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의 '신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등으로 바뀐 공공시설용지(3만759㎡)중 일부(6306.7㎡)를 사들인 뒤 22층 규모(연면적 2만3324.8㎡)로 원룸 2개동을 짓겠다며 지난 2013년 9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냈지만 반려된 데 불복,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된 건축 허용용도를 다시 변경하는 등 원상 복구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겠다는 데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정을 펼친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은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안팎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용도변경된 뒤 매각된 부지가 58.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후 특혜 행정으로 업무시설용지 바뀐 공공시설용지를 사들인 업체들의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 수사 칼날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순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대표(40)와 광양청 8급 공무원 김모(34)씨를 공공용지 용도 변경으로 1000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각각 구속기소한 데 이어 최근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 고위 공무원 C씨(57)와 순천시청 공무원 D씨(6급·55) 등 현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여개월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업체에 대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D씨도 신대지구 개발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순천시청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금감면 등 따른 이익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6일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7일 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였던 E씨(64)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백희준기자 bhj@/순천=김은종기자 ejkim@



“분수만 봐도 시원하네” 광주지역 낮 최고기는 26.1도를 기록한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성역없는 수사 촉구

순천 11개 시민단체 성명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에 중흥건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7일 순천지역 시민단체 11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은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난 중흥건설과 신대지구 개발을 둘러싼 공공용지 용도변경 등 불법 사행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순천YMCA·순천YMCA·순천KYC(한국청년연합)·순천청년연대·순천여성회·순천환경운동연합·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11곳이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중흥건설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수사범위를 한정 짓지 말고 불법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까지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에서 “비자금이 정계에 흘러간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발언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심각하게 대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신대지구 개발의 위법·부당 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한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양경찰 영장 재신청 끝에...사과상자 돌린 농협 조합장 구속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돌린 광양 모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애초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이번에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양경찰은 7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

합장 이씨를 도와 사과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 점장 서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이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20일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4만6000원짜리 사과상자를 각각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현직 조합장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또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당하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증거인

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 숫자가 10명 더 늘어난 것 외에 혐의 사실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 이씨가 명절 전 3600만원 어치의 사과를 지역 내 마트 2곳에서 구입한 정황을 확인, 추가로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 법원·검찰은 지금 ‘열공중’

법원과 검찰의 ‘향학열(向學熱)’이 뜨겁다. 광주지·고법 법관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이 재판에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인문학 수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광주지검 검사들은 수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공을 쏟고 있어서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인문학 강좌’를 개설,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인문학 수업을 진행중이다. 이승우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나는 왜 작가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을 시작으로 김봉중 전남

“재판·수사에 큰 도움된다” 인문학 강좌·전문성 키우기 대 사학과 교수의 ‘미국 대통령 리더십의 신화’ 강의 등이 열렸고 김광복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의 ‘흥겨운 우리 가락의 이해’,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자유로운 삶’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법관 및 직원들의 참여를 위해 재판 일정도 많이 없는 월요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진행된다. 강의가 열릴 때마다 법원 대회의실을 찾는 법관·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게 법원 설명

이다. 광주고법의 경우 전남대 인문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문학 강좌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받기로 한 바 있다. 광주지검도 최근 금융·강력·특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7개 전문화 커뮤니티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력 강화를 위한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전문가 양성 및 직원간 소통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조성된 커뮤니티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자만 100명이 넘는 등 열기도 상당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집요한 보복운전’ 결국 구속영장

순천경찰, 3명에 신청 경찰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4km/h 쫓아가며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광주일보 7일자 6면) 3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경찰은 7일 보복운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류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MW 운전자 류씨와 동승한 류씨의 친구 2명은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45분께 A(49)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순천시 연동동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수 산단 H화학회사까지 30여분간 따라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MW차량이 A씨의 SM5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밀어붙이기를 하는 등 보복 운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류씨 등은 또 A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40여분간 회사 정문 앞에서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직원들을 막아서고 경비원들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네서산물건 대형매장서환불요구 **쌍다발**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을 돌며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요하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철차신세.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2일 삼우지구 롯데마트를 찾아가 동네 마트에서 구입한 모기약과 과자 등을 환불해 달라며 여직원 최모(55)씨에게 욕설하는 등 최근 2개월간 유통업체 등을 돌며 갖는 행패를 부린 혐의. ○경찰에서 그는 “일본에 계산 머니가 최근 들어 용돈을 보내주지 않자 예전에 구입해둔 물건을 환불해서라도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관심** **관심**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음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대리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광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등부경철사 앞 매매가 15억	⑤ 수완지구 모뎀7평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삼우지구 정영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완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삼우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만
④ 서구 삼우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삼우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8만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382-55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일할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6㎡) 감평가 6억5천/최저가 2억9천(유용상가)
- ②북구 보훈동 만성빌딩(8층중 5층) (588㎡, 21726.18㎡) 감평가 14억/최저가 9억46천(총상당)
- ③북구 중흥동 써너스컨대(10층중 1층) (20032㎡, 2146.96㎡) 감평가 12억3천/최저가 9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산구 소촌동 (토400㎡, 건284㎡)감평가3억7천/최저가3억(세차장,카센터)
-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평가3억3천/최저가2억3천(2층건물/1층상,2층주택)
- ③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평가1억3천/최저가1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사설, 통건물)

- ①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예산식) (토8474㎡, 건11735㎡)감평가152억/최저가68억
- ②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21699.083㎡)감평가125억/최저가13억(3층상가건물)
- ③광양시중동 (토767㎡, 건3276.78㎡) 감평가126억/최저가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산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평가14억/최저가6억5천
- ②북구 중흥동(토300㎡, 건1235.92㎡)감평가11억/최저가6억2천 (6층모텔)
- ③북구 월출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평가10억/최저가10억
- ④광산구 정족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8114.46㎡) 감평가36억/최저가29억
- ⑤광산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건1999.85㎡) 감평가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⑥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65㎡, 건2667.16㎡) 감평가43억/최저가18억 (펜션바다근처건물깨끗 시설좋은)특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10-7384-78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 실전위주 교육
②V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최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금호동 7층상가 (유용상가) 건 296㎡ (상권좋은, 시설좋은) 감평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 건819평) 1층~2층상가 3층주택(건물 바로앞 도로및 바다)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 3 광양시 중동(근린시설) 토232평, 건991평 (도로접 상가사무실임대적합) 감평가27억-최저가18억

062-527-7600
010-7384-7800